

프로스트 시에 나타나는 치유적 기능으로서의 불확실성

김경순

우석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과 교수

The Uncertainty as the Healing Function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Kyoung-Soon Kim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Language & Culture, Woosuk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프로스트 시에 나타나는 치유적 기능으로서의 불확실성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시치료에서 다루고 있는 치료적 기능 중 하나는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프로스트 시는 이런 면을 불확실성으로 드러내고 있다. 프로스트의 불확실성은 그의 독특한 시론과 이원론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어 이 점을 연구하고 몇 편의 시 작품들을 통해 불확실성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프로스트는 시를 통해 우리사회가 지닌 비논리성, 애매성, 예측불가능, 그리고 일상에서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을 드러내고 삶의 복잡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프로스트의 시가 정신건강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영시의 치료적 기능에 대한 실용적인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애매성, 공존, 이원론, 치유적인 기능, 불확실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uncertainty as the healing function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One of the therapeutic functions in poetry therapy is to make us look into life from a new perspective, which appears in the uncertainty of his poetry. His uncertainty is based on his peculiar poetic theory and philosophy of dualism. This paper reviews these things and deals with aspects of the uncertainty in detail through his poem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Frost conveys elements of ambiguity, illogical development and unpredictability in our society and fear, loneliness and anxiety in our daily life, and also offers realistic depictions of complex life as a therapeutic medium for overcoming these problems. So it seems that his poetry provides us with a recovery of psychic health and a possibility of healing and personal growth. Furthermore we need a practical in-depth study on the healing function of English poetry.

Key Words : Ambivalence, Coexistence, Dualism, therapeutic function, Uncertainty,

1. 서론

현대인들은 변화가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쉽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때, 시는 현대인들의 이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는 직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os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young-Soon Kim(kks@woosuk.ac.kr)

Received September 23,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October 24,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시야를 폭넓게 함으로써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는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인간의식의 지평선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새로운 모든 것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우주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1].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는 치유적 속성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는 기능 즉 사물을 객관화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기를 담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는 대자연 속에 담긴 인생의 근원적인 의미를 추적하여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이 우리 시대를 채우고 있고 그로 인한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불안이 우리 삶을 통제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런 점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다룸으로써 독자가 삶을 편견없이 냉정하고 균형있게 바라보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시에 어떤 확고한 신념과 가치를 내세워 서가 아니라 오히려 애매성과 불확실성을 부각시켜 이런 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프로스트는 “걱정, 모순 그리고 신학적 불확실성을 시적 특성”으로 삼고 있다(Nitchie)는 평을 받거나 “어두운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그리고 인간 정신의 심리적 통찰을 지닌 불가사의한 시인”(Emdad) 혹은 “은유부단하고 애매한자”이며 “혼란을 주는 자”(Stanlis)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2,3,4]. 팩(Robert Pack)은 “시의 표면은 연설문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이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쉽게 드러나지 않듯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프로스트의 시론을 내세워 그의 시에 필연적으로 내재되어있는 불확실성을 주장했다[5].

시론 이외에 그의 불확실성은 모든 실체의 기본적인 요소인 정신과 물질을 각각 구분한다거나 혹은 어느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화합될 수 없는 상반된 것들이 그대로 공존한다고 보는 이원론적 철학에서 비롯된다.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프로스트의 시는 미해결의 결말을 보여준다거나 개연성이 없는 애매한 결론을 보인다. 시에서 다루어진 삶의 양면성과 막연한 두려움의 요소, 우연적이고 애매한 상황 설정 그리고 어색한 논리 전개들 또한 불확실성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애매함을 담고 있는 프로스트의 시를 읽다보면 독자는 뜻밖의 삶의 실체와 마주치게 된다. 그 실체성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삶에 대한 통찰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은 정서적 혼란을 극복할 치유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

다. 왜냐하면 시란 우리가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시에 감동되는 놀람의 순간이 치료제로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6]. 본 논문은 불확실성의 근거가 되는 시론과 이원론을 살펴보고 몇 편의 시작품들에서 프로스트가 불확실성을 통해 드러내려 한 삶의 실체성과 어떻게 이를 객관적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지 살펴본다.

2. 불확실성의 근거

프로스트 시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은 그가 언급한 시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작품에서 “말하지 않은 것, 즉 이야기 너머에 있는 것이 시를 만드는 것이고 말하지 않은 부분이 시에 있어 최고의 부분이다”. 또한 “시란 어떤 한 사물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의미하고, 다른 것을 통해 하나의 사물은 말하는- 숨겨진 것의 즐거움- 은유이다” 라고 했다[7]. 이는 그의 시가 감추어진 것을 통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프로스트가 은유를 시의 전부로 보고 모든 시가 하나의 은유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의 대부분의 시에서 의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다르게 혹은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프로스트 시는 의미의 구조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은 명확히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암시적인 의미를 추적해 가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표면 이면에 있는 숨겨진 의미는 독자에게 남겨지는 몫이다. 숨은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시에 몰입하게 만들고 삶의 실체적 진실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삶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줌으로써 정신적인 균형감을 얻게 하고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한다고 본다.

프로스트의 이원론적 세계관 또한 불확실성의 근간이 된다. 이원론이란 우주의 본체는 하나이며, 오직 하나의 원리가 모든 사물의 기초라고 보는 일원론과 달리 대립하는 두 가지 것을 현실의 기본 규칙으로 삼는 관념론적인 세계관이다. 예컨대 정신과 물질, 선과 악, 오성과 감성, 본체와 현상 등을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원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일원론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화합시키거나 융합시키는 통일성이나 단일성을 추구하지만 이원론은 두 가지 원리가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원론은 둘을 어느 하나로 통합시키지는 않

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어느 하나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프로스트가 지닌 이원론은 이와 좀 다르다. 그는 정신과 물질을 모든 실체의 두 개의 기본적인 요소로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다른 것보다 우월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정신과 물질은 똑같이 각각의 실체이며 두 가지가 짝을 이루며 끊임없이 대립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정신과 물질을 우리 몸의 두 다리로 비유하여 이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하나로 합쳐질 수도 없다고 본다. 정신과 물질이 서로 모순되지만 둘 중 하나가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라는 논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진리는 반대의 것 사이의 긴장을 고려할 때 가장 가깝게 접근된다고 믿었다. 그런 점에서 프로스트는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고 물질 위에 정신의 우월성을 두고 있는 낭만주의자들과 거리를 둔다[8]. 그리고 더 나아가 “물질을 정신으로 전환하고 또는 정신을 물질로 전환하여 최종적 결합을 이루려는 것은 실패한 철학적 시도이며, 이런 시도를 멈추고 정신적 관점에서 물질을 말하고 물질적 관점에서 정신을 말하는 시도가 시와 모든 사고와 시적 사고의 정점”이라고 주장한다[9]. 이러한 근거로 “우울한 이원론이 유일한 건전함”이며 이원론 철학자는 어려운 사건에서 양측의 주장을 잘 관찰하고 자신의 편견과 선호도와 상관 없이 공평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공정한 재판관으로 비유했다. “결론적으로 프로스트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그로 하여금 항상 사물에는 두 가지 결론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복잡한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문제가 단순한 이원론적 가정, 방법 혹은 결론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스텐리스는 지적한다[4].

프로스트는 자신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시에 인간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다. 그는 삶이 우리에게 이것이나 저것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면을 거부하거나 다른 한쪽을 이상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지양한다. 배타적인 삶의 모순을 어떤 해결책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스트의 시가 일원론적 사고에 익숙한 독자에게 때로 낯설게 혹은 모호하고 애매하게 느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자는 시인을 통해 고정 관념을 버리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막스(Herbert Marks)가 지적한대로 프로스트의 비전은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끌어안

고 그것을 응집시키면서 양극에 걸쳐있다. 그런 완성이 더욱 인상적이다[10].

3. 시에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양상

「가지 않는 길」(“The Road not Taken”)은 이원론을 근거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시라 할 수 있다. 표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는 선택의 문제이다. 어느 날 여행 중 화자는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 지점에 이른다. 화자는 전에 가본적도 없고 미래에 대해 알 수도 없는 두 길 중에서 어느 한 길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어쩔 수 없이 덜 다닌 길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물론 인생의 길은 두 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변명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화자는 윈터스(Yvor Winters)가 주장한 것처럼 지성을 갖고 있지 않는 “영적 표류자”로 보이고 감상적이고 판단력이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11]. 마침내 화자는 훗날 한숨 쉬며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한 결과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담담히 말한다.

어딘가에서 아주 먼 훗날에
나는 한 숨 쉬며 이렇게 말하리라
숲 속에 두개의 길이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노라고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12].

화자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길에 대한 회한과 미련을 갖고 있지만 지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비합리적인 선택의 이유와 후회와 한숨으로 애매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는 숨겨진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단순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이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는 삶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시각을 넓혀준다. 선택에 놓여진 두 길은 인생의 상반된 두 국면, 즉 선과 악, 행복과 불행,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등을 상징한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두 국면 사이에서 어느 하나만 취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

한다. 화자가 서로 다른 두 길의 차이점 때문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지만 사실 두 길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거의 같은 길이다.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하든 결과는 매 한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단순히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중요함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삶을 이원론 관점에서 성찰하는 태도- 두 대상이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성격을 지닌다 해도 똑 같이 중요하며 공평하게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스트 시들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번덕스럽고 우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윈터스의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그의 시는 인생을 단순히 이 길 아니면 저 길이라는 일원론적 사고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 즉 인생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 면으로 이해되거나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 이 시는 화자가 선택한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면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독자에게 인간의 삶에 모순과 어리석음과 복잡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때 이 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불확실하고 애매한 결론이 사실은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 즉 이원론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이언(John F. Lynen)이 프로스트 시에서 “표면적 단순성 밑에 깔려있는 더 많은 의미의 해독이 독자의 과제”로 남는다고 말한 점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13].

프로스트 시에는 옹고그른 것, 선과 악, 미와 추, 정의와 자비, 의무와 권리, 물질과 정신 등 대립되는 속성들이 항상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반된 것들이 갈등하면서 긴장 속에 조화를 이루거나 융합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른바 형이상학과 시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시는 형이상학과 시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조화, 융합 또는 통일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나 긴장을 더 부각시킨다[14]. 시에서의 상반된 이질적인 요소들은 시를 낯설게 혹은 불확실하게 느끼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면이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적나라한 삶의 실체를 인식하여 현실을 보다 더 잘 대비하게 만들어 주는 점이 있다. 「불과 얼음」(“Fire And Ice”)에서 이 점을 살펴보자. 시인은 먼저 인생의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의미에 두 개의 상충된 단어를 결합시켰다. 경구 같은 이 시는 지구상에서 인간 존재에 위협적인 삶의 요인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인간의 파괴적인 두 종류의 본능을 상징함으로써 불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을, 얼음은 증오와 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불로 세상이 끝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얼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한다.

Some say the world will end in fire,
Some say in ice.

욕망은 끝날 줄 모르는 불길이며 증오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담함이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얼마가 무서운지 그리고 차가운 증오 또한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말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욕망과 증오라는 두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고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된 두 관점이 이상적으로 화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없고 단지 갈등과 긴장의 상태로 놓여있음을 부각시킨다[14]. 다시 말하면 시인은 사랑이나 증용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파멸의 해결을 피하려 들지 않는다. 단지 끊임 없이 대립하고 투쟁하는 두 본능의 힘을 대비시키고 그것의 위력이 세상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경고를 세상에 인식시켜줄 뿐이다. 따라서 독자는 거리를 두고 삶의 위협적인 상황에 맞서는 냉정한 시각과 혜안을 생각하게 된다.

「담장 고치기」(“Mending Wall”) 또한 두 이웃과 그 이웃들의 상반된 가치들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보인다. 담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화자와 인습과 고정관념에 얽매어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이웃이 있다. 담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화자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그 이웃을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이웃은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완강히 고집한다.

나는 그를 본다.
양손에 돌의 윗부분을 꼭 쥐고 오는
그는 마치 구석기시대의 무장한 야만인 같다.
그는 내게 단지 숲과 나무 그늘이 아니라,
진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조상의 말쑥의 깊은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말쑥을 생각해 낸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다시 말한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

I see him there,
Bringing a stone grasped firmly by the top
In each hand, like an old-stone savage armed.
He moves in darkness as it seems to me,
Not of woods only and the shade of trees.
He will not go behind his father's saying,
And he likes having thought of it so well
He says again,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마침내 시인은 이웃이 양손에 돌을 짊어지고 '구석기 시대의 무장한 야만인처럼' 전투적 자세로 담장을 쌓고 있다는 것으로 끝맺음한다. 내면의 갈등 없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순하고 우직한 이웃의 원시적인 힘은 화자의 합리적인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인이 화자의 합리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거나 타당하다는 것을 결코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인은 분명히 이웃들의 합리성과 맹목성이라는 두 극단적인 상황을 드러내지만 어느 한편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단지 둘 사이 대화의 긴장감만을 잔잔히 전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어느 편이 더 나은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대립되는 두 이웃의 합리성과 맹목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울러 한걸음 물러나 극명하게 대립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통찰하게 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프로스트는 극히 평범한 일상사를 그린 시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그것을 읽는 기쁨을 통하여 삶에 대한 어떤 갈등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시인이 되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15].

「그것 만이었네」("The most of it")는 인간이 갖는 무심한 자연 혹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모호한 상황으로 전달한다. 화자는 스스로 온 우주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불러 일깨울 수 있는 소리는 호수 건너편 나무가 숨겨진 벼랑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조롱 섞인 메아리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소망하며 큰소리로 외쳐본다. 그러나 그가 듣게 되는 것은 물속에 떨어지는 그 어떤 것뿐이다.

그가 외친 것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반대편 절벽 벼랑 끝에서
그 무언가가 요란한 소리를 내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속으로 침병 뛰어 들었다.

And nothing ever came of what he cried
Unless it was the embodiment that crashed
In the cliff's talus on the other side,
And then in the far distant water splashed.

이 시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돌에 부딪쳐 물속에 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에 있다. 이를 신의 계시 혹은 현현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하는 물리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만일 신의 현현으로 본다면 그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단지 물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면 세상에 신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믿음과 불신 둘 중 어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암시하지 않고 그저 요란하게 떨어지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신과 자연 속에서 믿음이라는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주저함에는 신과 자연에 대한 루크레티우스의 관점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루크레티우스(Titus Lucretius Carus)에 의하면 자연은 의미나 목적이 없이 원자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일 뿐 그 이상이 아니다. 신들은 무심하게 멀리 있을 뿐 세상을 만들거나 조종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게 낫다고 보았고 인간이 걱정, 근심, 모순 그리고 신학적인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잘못과 근거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함을 주장했다[5]. 루크레티우스의 이런 관점과 연관지어 포터(James Poter)는 프로스트의 "우주가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는 독립적인 관계"라고 주장한다[16]. 분명한 것은 프로스트가 낭만주의자들처럼 신과 인간 혹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통일시켜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 한단든지 혹은 자연 속에서의 이상적인 정신적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인간이 믿음 혹은 불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믿음과 불신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갈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삶의 현실임을 보여줄 뿐이다.

시적 의미와 상황의 불확실성은 빈번히 어둠 혹은 밤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팩이 "프로스트의 시가 계속해서 어둠으로 들어가거나 그와 동등한 내적 어둠으로 과감히 나아간다"고 주장할 만큼 많은 시에 어둠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5].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 프로스트는 우리 삶 속에 불확실성이 정착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나는 밤을 아는 자다」("Acquainted with the night") 시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마음의 어둠속을 여행하는 자다. 그는 어둠과의 대결을 외면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는다. 마침내 도시 먼 곳까지 간 화자는 멀리 높게 떠 있는 달을 시계처럼 본다.

이 땅을 벗어난 저 높은 곳에서
하늘에 걸린 빛나는 시계는

그 시간이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다고 말했다
나는 밤을 아는 자다.

And further still at an unearthly height

One luminary clock against the sky

Proclaimed the time was neither wrong nor right
I have been one acquainted with the night.

높은 곳에서 빛나는 시계는 이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을 암시한다. 한편 그 시간이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은 화자는 마침내 첫 행에서 고백했듯이 마지막 행에서도 자신은 '밤을 아는 자'라고 고백한다. 이 시는 화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않고 모든 일이 우발적이고 감상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끌려지고 있어 독자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가령 먼저 '밤을 아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시간이 맞는지 틀리지도 않는다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첫 행에서 나는 밤을 아는 자이다'라는 고백과 마지막 행에서의 '나는 밤을 아는 자'라는 고백은 같은 의미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라는 문제들이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해 표면적 이야기로는 개연성 있는 답변을 추론할 수 없지만 프로스트의 시적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불확실한 문제들이 명료해진다. 이 시에서 화자는 강박적인 자아에 갇힌 채 철저한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외로운 화자는 시간의 의미도 없고 말도 소용이 없는 내면의 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간다. 마음과 영혼에 깊이 묻혀있는 그의 고독은 부끄러움과 죄의식으로 사람을 피하게 만든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은 자신을 위로해주거나 희망을 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친구도 희망도 없는 화자는 높이 떠 있는 달이 시간처럼 무심하다는 것을 느낀다. 냉혹하고 두려운 우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17]. 그러나 이후, 화자는 어둠이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물론 이를 홀로 직면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따라서 화자의 어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 해도 시인은 시작 행과 끝 행을 똑같이 표현하여 인간의 어둠은 궁극적으로 출구 없는 순환 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팩의 지적처럼 우리는 결코 어둠을 알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길 잃은 자들이라는 인식을 준다[5]. 시인은 이 시를 통해 다시 한번 독자에게 고독한 삶에 감상적 위로라는 허상을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불확실성에서 고독한 인간 삶의 한 면을 직시하게 만든다.

「역마」("The Draft Horse")는 우연한 상황과 더불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전개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시다. 이 시는 어느 한 부부가 역마를 타고 어두운 숲속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부부가 집을 떠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마치는 튼튼하지 않고 렌턴에 불빛마저 없다. 철쭉 같은 어둠을 뚫고 부부는 끝없는 숲길을 여행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인물이 숲에서 나와 칼로 말을 찔러 죽인다. 그 행동은 다분히 고의적이거나 그 목적과 의도는 모호하다.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부부가 이 상황을 전혀 놀라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다. 부부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항의나 불평 한마디 없이 말을 살해한 인물이 자신들이 말을 놔두고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황당한 결론을 낸다. 이성과 상식으로 이 부부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시인이 아무런 의미 없는 임의적인 사건을 서술했다고 일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이 황당한 사건을 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운명을 받아들이고
미워해야 할 이상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아무런 의심 없는 부부로서

우리는 바로 그 남자 혹은
그가 순종해야 할 그 누군가가
우리가 말에서 내려와
나머지 길을 걸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The most unquestioning pair
That ever accepted fate
And the least disposed to ascribe
Any more than we had to hate,

We assumed that the man himself
Or someone he had to obey
Wanted us to get down
And walk the rest of the way.

다시 고찰해 보면 언제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응적인 부부이기에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행한 사건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점이다. 그래서 부부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냉정하고 차분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인 운명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인은 이런 불가해한 사건을 당하고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 부부의 해결 방식에 이렇게 독자를 끌어들이어 이 문제를 탐색하게 만든다.

이 시에서 여행으로 비유되고 있는 인생이 단순한 여

행이 아니고 오히려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여행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시인은 그 부부가 당하는 뜻밖의 사고를 통해 예측불허한 일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역을 함을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독자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생각해 온 부부의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역센 운명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의연히 운명에 맞서 삶을 버텨내는 그 부부의 행동이 무모함이 아닌 삶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시의 낯선 전개로 의아한 독자들은 후에 시인이 감추어 놓은 이 같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시각을 발견하고 경외감을 느낀다. 이런 점은 시적 진술을 통해 배출된 감정은 새로운 감정의 전이를 일으켜 치유의 감정을 활성화 시킨다고 보는 시 치료에서의 치유적 기능의 요소이다[18]. 프로스트는 시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않고, 때로는 비상식적 전개를 통해 이렇게 독자 스스로 숨겨진 뜻을 찾아 가도록 하고 있다. 가장 평범한 일상사건에서 독자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8]. 그럼으로써 그의 시는 독자에게 세상에 대한 시야를 폭넓게 해주고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4. 결론

시는 리처즈(I. A. Richards)의 지적처럼 정서적 혼란 절망과 혼돈을 극복할 거의 완벽한 수단으로서 현대적 실존의 무질서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구원책이 될 수 있다[19]. 프로스트는 기존 질서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변화의 불안감 속에서 시에 인간의 근원적인 불확실성의 문제를 담아 인간의 삶의 평형각각을 회복시키고자 했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삶의 불확실성을 그려내고 있으며 합리적인 지성이나 사고에서 오는 명료한 결론 대신 불확실한 결말로 이끌어 독자에게 시의 참된 뜻을 탐구하게 만들었다.

프로스트가 제시한 인간 삶의 불확실성과 시적 의미의 모호성은 그의 시론과 이원론 철학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의 불확실성의 기저에는 비논리성, 애매성, 예측불가능이 우리 시대를 채우고 있고 우연성, 모호성이 우리 삶을 통제한다고 보는 점과 그에 따라 해결 모색을 위한 어떤 이론이나 절대적 가치나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다는 인식이 있다. 그는 외롭고, 불안

하고 거친 현실적인 삶의 여러 형태를 편견과 고정 관념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삶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고 삶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다.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성급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독자들에게 더 진실한 삶을 바라보게 하고 객관적인 균형감을 갖게 하여 혼란과 좌절에서 스스로를 구하고 지켜줄 수 있게 한다[19]. 따라서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프로스트의 시가 정신건강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치료적 기능으로서 시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를 넘어 시 치료 방법에 관한 영시의 실용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1] Aiken, Conrad. (1981). Poetry and Modern Spirit. in Chang-bae Lee. *Contemporary American Poetry*. Seoul: Tamgusunseo.
- [2] Nitchie, George W. (1979). *Human Values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New York: Goian P.
- [3] Edmad, Naser. (2006). Design, Darkness and duality: Defamiliarization in Frost's Poetry. *ASA University review*, 7(1), 39.
- [4] Stanlis, Peter J.(2006). *Robert Frost: The poet as Philosopher*. Wilmington: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 [5] Pack, Robert. (2003). *Belief and Uncertainty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Hanover and London: UP of New England.
- [6] Fox John. (1997). *Poetic Medicine: The Healing Art of Poem Making*. New York: Penguin Putnam Inc.
- [7] Frost, Robert. (2007). *The Collected Prose of Robert Frost*, Ed. Mark Richardson. Cambridge. Mass: Harvard UP.
- [8] Frost, Robert. (1964). *Selected Letters of Robert Frost*. Ed. Lawrance Thomson. New York : Holt.
- [9] Frost, Robert. (2007). *The Collected Prose of Robert Frost*. Ed. Mark Richardson. Cambridge. Mass: Harvard UP.
- [10] Marks, Herbert. (1986). The Counter Intelligence of Robert Frost in *Modern Critical Views 58. Robert Frost*.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 [11] Winters, Yvor. (1967). Robert: Or, the Spiritual Drifter as Poet. in *The Function of Critic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12] Frost, Robert. (1995). *Collected Poems, Prose, and Plays*. Ed. Richard Poirier and Mark Richardson. New

York: Library of America.

- [13] J. S. Shin. (2003). Robert Frost's Nature poetry and His Strategic Retreat. in *Studies of Modern Poetry*, 9(1), 95-114.
UCI:I410-ECN-0102-2009-840-004434508
- [14] Perkins, Dabid. (1976). *A History of Modern Poetry: from the 1890s to the High Modernist Mode*. Cambridge : Harvard UP.
- [15] Y. M. Hyun. (2002). Transcendental Vision in Robert Frost's Poetry in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8(2), 371-396.
UCI: 1410-ECN-0102-2009-740-004445499
- [16] Poter, James L. (1980). *Robert Forst Handbook*,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P.
- [17] Lynen, John F. (1962). Frost as Modern poet in James M. Cox.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 J: Prentice Hall.
- [18] I. K. Park. (2018). The Neurophysiology of Poetic Feelings' Partial Pressure and Diffusion -Focusing on Cho Ji-Hoon's Poem *Dense Forest* in a Convergence A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9(6), 147-154.
DOI: 10.152047/JKCS.2018.9.6.147.
- [19] H. R. Seo & K. S. Kim. (2018). Digital Culture and the Utility of Poetry in a Convergence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343-350.
DOI:10.14400/JDC.2018.16.1.343

김 경 순(Kyoung-soon Kim)

[정회원]



- 1983년 2월 : 전북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학사)
- 1987년 2월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 1995년 2월 :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국제

언어문화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미시, 영문학, 영어 교육
- E-Mail : kks@woosuk.ac.kr